

■ 한라일보-초록우산 공동기획 /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주변 돕는 일, 꼭 많은 돈 아니어도...”

고등학생 나눔실천리더 5년간 이어온 어린이 사랑 학교내 나눔문화 확산 기여



도내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로 구성된 5년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봉사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 나눔실천리더' 사진-초록우산 제공

매년 여름 도내 학교 학생회 임원들은 '나눔실천 리더'라는 이름을 내걸고 어린 동생들을 돕겠다고 하나들 모이기 시작한다. 한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기획한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캠페인 6호 인터뷰 대상인 '나눔실천 리더'를 소개한다.

나눔실천 리더는 2015년부터 참여 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매년 여름 약 4주간 어려운 환경에 처한 동생들을 위해 나눔을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2019년 활동에 참여한 중앙여자고등학교 홍수진 학생회장은 “지난 4주간 홍보 활

동을 진행하면서 직접 나눔에 참여하는 학우와 선생님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큰 박수와 감사를 보냈다”며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이 있었지만 활동을 통해 스스로 보람과 뿌듯함을 얻어갈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나눔실천 리더 활동은 참여 학교 학생회의 임원진이 새로 바뀔 때, 전 학생회 선배의 권유로 전통처럼 내려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올해 5년째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사업으로 나눔활동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1651명의 고등학생들이 정기후원에 참여했다. 2017년까지 무연고 아동

및 환아 지원을 위해 활동을 실천했다면, 2018년에는 케냐지역의 동생들을 위해 학교 개보수 지원사업을 함께해 나리타-니티 지역의 한 학교에 나눔실천 리더 참여학교의 현판이 부착되기도 했다. 올해는 우간다 지역 교육시설 지원에 힘을 쏟았다.

홍수진 학생회장은 “기부는 참여하는 사람, 받는 사람 누구도 손해 보는 일이 없는 의미가 가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부하는 것이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며, 대부분 주변 학우들이 많은 금액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 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고 전했다.

※후원 문의=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753-3703)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소방시설 주변 노면표시 확대

제주시는 8000만원을 투입해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시설(소화전) 양측 5m이 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금지를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면표시 작업 완료후에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승합차인 경우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차인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어르신들... 전통장만들기 체험 제주시 용담2동 지역 어르신들이 30일 주민센터에서 마련한 전통장만들기 체험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이상국기자

“놀멍 쉬멍 먹으멍 올레길 걸어요”

제10회 올레 걷기축제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10번째 '제주올레 걷기축제'가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 제주올레 8·9·10코스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올레 주관으로 진행되

며, 하루 한 코스씩 올레길을 걸으면서 길 위에 펼쳐지는 문화예술공연과 전통문화체험, 지역 먹거리를 즐기고 제주의 독특한 섬문화와 마을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이동형 축제다.

첫날에는 8코스 시작점인 서귀포시 중문동 약천사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까

지 정방향으로 14.8km를 걷는다. 둘째날에는 9코스 종점인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에서 논짓물까지 역방향으로 11km, 마지막 날에는 10코스 시작점인 화순금모래 해수욕장에서 종점인 대정읍 하모제육관까지 정방향으로 17.5km를 걷게 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개인 걷과 수저를 가져오도록 하는 환경운동이 진행되며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과 미국 등 전 세계 1만여명의 도보여행자들도 참여한다. 송은범기자

故 문형순 성산포경철서장-양조훈 4·3재단 이사장 국제 NGO 수여 평화상 공동수상



故 문형순 서장 양조훈 이사장

다 회원 국가를 순회하며 포럼을 개최하고 평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제9차 컨퍼런스는 APMF와 한국감등조정가협회 공동 주최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아시아 평화'란 주제 아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각국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NGO가 수여하는 평화상 수상자로 제4·3의 광풍 속에서 생명을 구한 고 문형순 전 성산포경철서장과 진실규명에 헌신해 온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뽑혔다.

한국감등조정가협회(회장 원창희)는 제9차 아시아태평양조정포럼(APMF, Asia Pacific Mediation Forum) 평화상 수상자로 문형순 전 서장과 양조훈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PM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 회원이 가입한 갈등 해결의 비영리 전문협의체로, 2년마

문형순 서장의 공적에 대해서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예비 검속자들을 처형하라는 계엄사령부의 명령을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고 거부해서 무고한 민간인 200여명의 생명을 구한 용기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했다.

평화상 심사위원회는 또 양조훈 이사장에 대해서는 40여년 동안 4·3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백편의 기사와 강연을 해왔으며 30여년간 계속돼온 그의 집요하고 용기있는 노력은 마침내 한국정부의 사과와 잘못된 인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중·고교 사학법인 개방이사 자격 강화

도내 10곳 정관개정 완료 교육감 “교육청 권고 반영 전국 유일이자 최초 사례”

도내 학교법인 개방이사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도 내실화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전국에서 처음 중·고교·특수 학교를 운영하는 도내 10개 사학법인에 대한 정관 개정 작업을 마쳤다.

이번 개정은 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이 바탕이 됐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방법과 절차 개선 등 정책 내용을 반영해 사학법인에 정관 개정을 권고해왔고 지난 4월 삼성학원(삼성여고)을 시작으로 9월까지 10개 사학법인 전체가 정관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 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중전에는 개방이사에 대한 구체적 자격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학교법인 임원이나 전·현직 교원을 개방이사로 추천해왔다.

교원 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 운영도 내실화해 ‘교원인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추천 또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등 민주적 구성 근거를 뒀다. 또한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이 심의대상으로 규정돼 교감 연수 대상자 추천 등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실질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바꿨다. 학교운영위원회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에·결산, 임원선임 내역 등 주요 정보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공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내 사학이 도교육청 권고사항을 100%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전국 유일이자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GOLDEN DISPLAY TECHNOLOGY

- ◆ 고품질 LED/LCD 판매 및 임대
- ◆ 교회, 대형 전광판 시공
- ◆ 홈시어터 스크린 시공
- ◆ 실내 인테리어 투명 LED 시공

판매 문의 : 064-742-4877

(주)골든디스플레이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도 낮은 비용으로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